

##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하편 ◀

### Ⅳ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 \*찬기파랑가 (30문제)-----1쪽
- \*시조 세 편 (31문제)-----12쪽
- \*수의 비밀 (25문제)-----26쪽

2.

- \*조신의 꿈 (35문제)-----38쪽
- \*사씨남정기 (33문제)-----56쪽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0문제)-----80쪽

3.

- \*봉산 탈춤 (43문제)-----109쪽
- \*불모지 (18문제)-----138쪽

4.

- \*한중록 (17문제)-----153쪽
- \*권태 (9문제)-----168쪽
- \*공방전 (19문제)-----174쪽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30문제)-----185쪽

### Ⅴ 문학에 관한 태도

- \*만보 (12문제)-----200쪽
- \*광문자전 (11문제)-----208쪽

◆빠른 전체 정답-----214쪽

◆해설-----216쪽

**교재 버전: 2021.02.14**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조신의 꿈” 꿈역 명리

**핵심 정리** 고려시대사화

갈래	설화(전설), 환몽 설화
성격	환몽적, 교훈적, 불교적
배경	신라 시대 명주 날리군
주제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
특징	①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로,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 됨. ② 구체적인 지역과 증거물 등 전설로서의 특징이 나타남.

**꿈꿈 정리** 고려시대사화

- 꿈속에서의 삶
  - 가난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며 구걸함.
  - 큰아들이 굶어 죽고, 딸아이가 구걸하다가 개에게 물림.
  -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림.
  - 부부가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헤어짐.

↓

조신에게 세속적 삶의 고통을 깨닫게 함.

**꿈꿈 정리** 고려시대사화

- ‘꿈’의 역할

조신이 꿈에서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어 욕망을 성취하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이별을 맞으면서 깨어남.

↓

**꿈**

조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속적인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장치

**꿈꿈 정리** 고려시대사화

- 꿈을 통한 조신의 깨달음

꿈을 꾸기 전	세속적 욕망을 추구함.
꿈속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나 삶의 고통과 불행을 겪음.
꿈에서 깨어난 후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함.

##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인생의 무상함과 욕망의 덧없음을 하룻밤의 꿈을 통해 깨달은 조신의 삶을 다룬 신라 때의 설화이다. 서사 갈래의 초기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승려 조신은 태수의 딸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부부가 되어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한 바람을 이루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던 조신은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태수의 딸과 부부가 된다. 꿈속의 조신은 처음에는 그녀와의 삶이 몹시 즐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신 부부는 늙고 병들었고, 자식들은 굶어서 죽거나 구걸을 하였다. 그들에게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결국 조신의 아내가 조신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하고, 각자 거처를 찾아가던 중에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다. 이로써 서사는 다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고 이때부터 조신은 ‘세속을 탐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 낸다. 이처럼 이 작품은 욕망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훈이 ‘현실-꿈-현실’의 서사 구조를 통해 드러나 있다. 또 인물들의 성격도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서사 갈래로서의 성격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처럼 ‘꿈’이라는 서사 장치는 어떠한 삶의 이치나 철학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후대에 등장한 「구운몽」이나 「옥루몽」 등의 몽자류 소설에서 그러한 예를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고, 「원생몽유록」과 같은 몽유록계 서사 문학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후대 서사 갈래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조신의 꿈” 교과서 활동 문제

### 1. 이 작품의 흐름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꿈’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

구분	사건의 흐름
꿈을 꾸기 전	승려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와 맺어지게 해 달라고 관음보살에게 빌지만 김흔의 딸에게 다른 배필이 생긴다.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잠이 든다.
꿈속에서	꿈에 김흔의 딸이 조신을 찾아와 인연을 맺고 사십여 년을 함께 살며 다섯 자식을 둔다. 그러나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 자식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자, 두 사람은 각자 아이를 둘씩 데리고 헤어져 살기로 한다.
꿈을 꾸고 난 후	꿈에서 깬 조신은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그는 꿈에서 죽은 자식을 묻은 장소에서 나온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정토사를 지어 수행한다.

(2) 이 작품에서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 보자.

주인공인 조신이 욕망하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대신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지나는 욕망의 덧없음과 삶의 괴로움을 깨닫게 하고 있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설화의 특성을 아래에 보자.

#### 보기

설화는 구비 문학의 일종으로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신화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事績),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 등을 주로 다룬다. 전설은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한 이야기이다. 전설 속 사건은 대체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전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실재하는 경우가 많다. 민담은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가 막연한 경우가 많으며, 이야기의 증거물이 중시되지도 않는다.

(1) 이 작품이 ‘신화’, ‘전설’, ‘민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자.

이 작품은 전설에 해당한다.

(2) (1)에서와 같이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

이 작품은 조신의 이상한 체험(하룻밤의 꿈)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꿈’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보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몽자류 소설인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이 작품과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보기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간 성진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부린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를 생각하다 인간 세상에 추방되어 양소유로 태어난다. 팔선녀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그사이 나라에 공을 세운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자신의 부인과 첩이 된 팔선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던 양소유는 두 명의 부인과 여섯 명의 첩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이때 도승이 나타나 성진의 꿈을 깨운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육관 대사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팔선녀 역시 불제자가 되어 성진과 함께 극락왕생한다.

- 공통점: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꿈에서 한평생을 사는 경험을 한 후,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등
- 차이점 : 「조신의 꿈」의 조신은 꿈에서 고달픈 삶을 살며 괴롭고 슬픈 일을 주로 경험하지만, 「구운몽」의 성진은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일을 주로 경험한다. / 「조신의 꿈」의 등장인물은 평범한 사람인 데 반해 「구운몽」의 등장인물은 비현실적 세계의 인물로 그려진다. 등

**(2)** (1)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작품과 같은 설화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야기해 보자.

「조신의 꿈」에 나타난 환몽 구조는 「구운몽」 등 몽자류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설화는 그 내용과 형식이 후대의 소설 문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신의 꿈” 읽고 생각하기

**1. 지명과 인명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서사에 사실성을 더해 독자들이 작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이야기에서 ‘돌미륵’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조신이 꿈에서 조신은 해현령 근처에 큰아들을 묻는다. 현실로 돌아온 조신이 해현 근처에서 찾은 돌미륵은 조신이 꿈에서 현실과도 관련이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돌미륵은 이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로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 주기도 한다.

## “조신의 꿈” 단원 학습

교과서 · 212쪽 3~4행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이 명주(溟州) 남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서사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 설화가 특정 지역의 전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에 실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편찬한 일연이 설화의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술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 212쪽 10~12행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 김흔의 딸과 인연이 맺어지기를 관음보살에게 비는 조신의 모습은 그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와, 종교에 귀의한 승려인 그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녀와 맺어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에게 배필이 생김으로써 조신의 소망은 좌절된다.

교과서 · 212쪽 12~15행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 소망의 좌절에 불만을 품고 관음보살을 원망하던 조신은 현실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게 된다. 이 부분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입몽’에 해당한다.

교과서 · 212쪽 19~22행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한계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품절을 하게 되었다.

- 꿈에서 조신은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고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 살며 자식 다섯을 두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낸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인 인생의 괴로움을 집약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욕망을 이루는 것이 현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 212쪽 24행~213쪽 1행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풍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巖)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로 얻은 집을 짓고 살았다.

- ‘강릉 해현령’이나 ‘우곡현’과 같은 구체적 장소를 언급함으로써 서사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조신과 아내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아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심했음을 알 수 있는데, 큰아들을 해현령 근처에 묻는 사건은 꿈을 깬 이후 돌미륵을 얻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꿈과 현실을 연결한다.

교과서 · 213쪽 5~13행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허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거들에 사랑의 싹을 피워 부부의 청을 즐기겠습니까?”

-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세속적 쾌락에 이끌린 선택은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불행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사랑과 행복이 힘들다는 것을 아내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 213쪽 26~29행

그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 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되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진혀 뜻이 없어졌다.

- 조신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으로, ‘각몽’에 해당한다.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지만, 그 꿈속에서 사십여 년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신은 한평생의 삶이 고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속을 탐하는 마음 역시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교과서 · 214쪽 2~4행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 꿈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은 조신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부처님께 바치고, 수행을 통해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捺城郡)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捺生郡)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령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으로 지금의 강주(剛州)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뻔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주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달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 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조신의 꿈’

**김해물하고등학교 (경남)**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내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 ② ㉡: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조신 부부의 삶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젊은 날의 행복과 금석맹약이 허무한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⑤ ㉤: ‘돌미륵’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해물하고등학교 (경남)**

**2.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유사한 시조는?**

- ① 靑草(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紅顏(홍안)을 어디 두고 白骨(백골)만 무쳤논이  
齷(잔) 자바 권허리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 ② 가마귀 썬호는 골에 白鷺(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출 시울세라  
淸江(청강)에 쥬히 씨슨 몸을 더러일가 호노라
- ③ 아버지님 날 나호시고 어머니님 날 기르시니  
父母(부모)웃 아니시면 내몸이 업실났다  
이 덕을 갑허려 하니 하늘 7이 업스샷다
- ④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호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 춘심)을 子規(자규)야 아라마논.  
多情(다정)도 병인 양호야, 쥬 못 드러 호노라.
- ⑤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호다  
中天(중천)에 썬이서 任意(임의)로 든니면서  
구둑야 光明(광명)호 날빛출 썬라가며 덤느니

**김해물하고등학교 (경남)**

**3.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주인공 조신이 사모하던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욕망을 성취하지만, 이후 참담한 고통을 겪는 것을 꿈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욕망이나 그 성취는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이며,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설화는 ‘㉠현실-㉡꿈-㉢현실’이라는 전형적인 환몽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운데의 ‘꿈’ 부분이 내화(內話)이고 바깥의 ‘현실’ 부분이 외화(外話)로서 액자식 형태이기도 하다. 현실에서의 어떤 집요한 생각 때문에 꿈 속에서 이와 연관된 사건을 체험하고 꿈을 깬 뒤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구조를 가진 설화를 ‘환몽 설화’라고 한다.

- ① ㉠에서 주인공이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관음보살에게 비는 집요함이 ㉡로 가는 계기가 된다.
- ② ㉡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원한 삶을 성취하였으나 그로 인해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된다.
- ③ ㉡를 경험하고 ㉢로 돌아온 주인공은 ㉠에서 가졌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
- ④ ㉡의 경험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이 드러난다.
- ⑤ ㉡를 통해 얻게 된 참된 이치는 ㉢에서 주인공이 정통사를 짓고 수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김해물하고등학교 (경남)**

**4. 조신의 꿈을 전설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쓰고 근거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시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개 고르시오.**

- ① 입몽과 각몽이 필연적 사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② 사건의 전개 양상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환몽구조이다.
- ④ ‘신라시대’, ‘강릉 해현령’과 같이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 ⑤ 등장인물은 주로 비현실적 세계의 인물이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6. 뒷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속에서 조신과 그 아내가 헤어진 실제적인 이유는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다.
- ② 꿈속에서 조신은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슴 아파한다.
- ③ 조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는 것은 현실에서 급격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 ④ 꿈에서 깬 조신은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장원을 관리하는 임무에 전념하였다.
- ⑤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에서 나온 돌미륵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세달사에 모셨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7. ‘부부간의 언약’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구절을 찾아 쓰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捺城郡)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捺生郡)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령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으로 지금의 강주(剛州)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①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딸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매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②열다섯 살 된 큰 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 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포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③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거나 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④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⑤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⑥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조신의 꿈’

**중산고등학교 (서울)**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교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시점 변화가 여러 번 나타난다.
- ③ 영웅의 전 생애가 담긴 일대기적 구성이다.
- ④ 현실과 과거를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 ⑤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사씨남정기” 분석 정리

## 핵심 정리

갈래	국문 소설, 가청 소설
성격	교훈적, 풍간적
배경	중국 명나라 일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 씨의 고행, 권선징악(勸善懲惡)

## 맥심 정리

- 특징**
- ① 열부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형상화함.
  - ② 선과 악의 대립적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함.
  - ③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됨.

## 공공 정리

- 교 씨의 교묘한 연행
    - 평상시와 달리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거부함.
    -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펄펄 흘림.
    -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말함.
- ↓
- 한림이 사 씨에게 의혹을 품도록 부추김.

## 공공 정리

- 교 씨의 모함에 대한 한림의 반응
    - 한림은 평소 품행이 바른 사 씨를 신뢰하고 있었음.
- ↓
- 사 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 씨의 말이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여김.
- ↓
- 사 씨의 본래 성품이 어질다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지켜 줄 것이라고 말하며 교 씨를 안심시킴.

## 공공 정리

- 사 씨와 교 씨의 성격
    - 사 씨**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인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인을 신뢰함.
- ↓
- 교 씨** 선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위선적이며 교활하고 사악함.

## 공공 정리

- 서술자의 개입
    -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 ↓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평가하고 상황에 대해 해설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함.

## 공공 정리

- 작품의 의의
    -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고 유교적 교훈을 전달함.
    - 가정 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속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간 인과 관계가 뚜렷하여 우연성이 적음.
- ↓
- 의의**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하고 후대 가정 소설의 모범이 됨.

## 공공 정리

- 「사씨남정기」의 창작배경
 

<b>역사적 사건</b>	<b>「사씨남정기」</b>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 씨를 중전으로 책봉함.	유 한림이 사 씨를 내쫓고 첩인 교 씨를 정실부인으로 삼음.

↓

인현 왕후의 폐비 사건이 부당함을 드러내어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됨.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처첩 갈등, 정쟁(政爭)과 유배 등을 통해 창작 당시 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 씨를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사 씨의 권고에 의해 첩으로 들어온 교 씨가 본처인 사 씨를 모함하기 위해 간계를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장면을 통해 작가는 처첩 갈등과 그 배경, 가부장의 자질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사 씨와 교 씨는 각각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인물 유형에 해당하는데, 사 씨가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이라면 교 씨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악인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물 유형을 통해 사 씨와 같은 여인의 부덕(婦德)을 높이는 동시에 교 씨와 같은 악인은 패망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 당대에 널리 읽힌 것은 물론 후대에도 전승되었다. 김만중의 종손인 김춘택은 양반 남성 독자들을 위해 이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사씨남정기」는 상하 계층 남녀 독자들에게 모두 애호를 받으며 유통되었다. 이 작품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소설사에서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씨남정기” 큰따옴표 활용 문제**

**1. 이 소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근거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인물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	성격
사 씨	가정을 위해 첩을 들이기로 하였으며, 첩인 교 씨를 시기하지 않고 바른길로 인도하고자 함.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어질고 타인을 신뢰하여 진심으로 대함.
교 씨	사 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 한림에게 사 씨를 모함함.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간악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유 한림	교 씨의 말을 듣고 교 씨를 위로하면서도 사 씨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교 씨의 간계를 깨닫지는 못함	배려심이 있고 믿음이 두터우며 신중한 성격이나, 사람의 됴됨이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함.

**(2)**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 보자.

<b>서술자가 개입한 부분</b>	<b>효과</b>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 아니 할 수 있겠는가? (교과서 221쪽 1~8행)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따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2.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이해해 보자.**

**(1) 유 한림이 교 씨를 첩으로 들인 이유를 말해 보자.**

유 한림과 사 씨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사 씨가 유 한림에게 첩을 들여 대를 이을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2) 교 씨가 사 씨를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자.**

교 씨는 첩이라는 지위에 불만과 불안감을 느껴, 사 씨를 모함하여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을 찾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

이 작품에는 한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관습인 일부다처(一夫多妻) 또는 일부처첩(一夫妻妾)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법제화된 오늘날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3. (가)는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이고, (나)는 이 소설에 관한 당대의 평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가) 소식의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데, 집안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 두고 옛날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저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 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 김만중, 『서포만필』 중에서

(나)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敎)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 김춘택, 『북헌집』 중에서

**(1)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한 의도를 추측해 보자.**

(가)에서는 역사서와 달리 소설이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 주기 때문에 통속 소설이 창작된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이 소설이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교훈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작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소설로 창작하여 독자들이 이를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과정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이 소설이 어떤 독자층에서 주로 읽혔는지 이야기해 보자.**

현숙한 사 씨가 복권(復權)되고 사특한 교 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으므로, 유교적 도리와 부덕(婦德)을 강조했던 당대의 풍토에서 여성 독자뿐만 아니라 식자층에게 폭넓게 읽혔을 것이다. 또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루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어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독자층에서 읽혔을 것이다.

**4. 이 소설과 관련된어, 다음 활동을 모둠별로 해 보자.**

**(1) ‘숙종-인현 왕후-장 희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 보고,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살펴보자.**

	역사적 사실	「사씨남정기」
인물	숙종 - 인현 왕후 - 장 희빈	유 한림 - 사 씨 - 교 씨
사건	인현 왕후는 덕성이 뛰어나고 왕후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했다. 숙종은 후궁인 장 희빈을 총애하였는데, 장 희빈은 중전이 되기 위해 간계를 부려 인현 왕후가 폐위되도록 한다. 이후 장 희빈의 음모가 밝혀져 인현 왕후가 복위되고 장 희빈은 죽음을 맞는다.	현숙한 처인 사 씨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교 씨를 첩으로 들이게 한다. 아들을 낳은 교 씨는 사 씨도 아들을 낳자, 자신의 지위에 불안함을 느껴 흉계를 써서 사 씨를 집안에서 내쫓는다. 유 한림과 다시 만난 사 씨는 가정으로 돌아와 영화를 누리고, 교 씨는 응징된다.

## “사씨남정기” 읽기 중 읽기

### 1. 교 씨가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 씨는 사 씨를 모함하기 위해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장부(한림)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사 씨의 충고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는 사 씨를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다.

### 2. 교 씨가 묘사하는 사 씨는 어떤 인물인가?

교 씨는 한림에게 사 씨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사 씨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교 씨에 말에 의하면, 사 씨는 작은 일로 첩을 책망하고 투기하는 사람, 처첩 간의 위계를 중시하여 첩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 “사씨남정기” 구절 읽기

교과서 · 218쪽 7~9행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천자는 장차 그를 크게 쓰려 하였다. …… 그런데 엄 승상(嚴承相)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다.

○ 유 한림이 천자에게 총애를 받았음에도 엄 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아 관직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엄 승상이 권력을 쥐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후에 엄 승상에 의해 유 한림에게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교과서 · 218쪽 10~14행

그들이 성혼한 지도 또한 십 년 가까이 흘러갔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중략) 사 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 사 씨는 결혼한 후 십 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식을 얻기 위해 첩을 둘 것을 한림에게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던 당대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일부다처제가 용인되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 218쪽 20~23행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원난의 근본이야.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 처첩 제도의 부정적 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두 부인의 말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십 년 가까이 자녀가 없던 사 씨는 첩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집안의 어른인 두 부인은 한 집안에 두 여인이 드는 것이 가정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교과서 · 219쪽 7~9행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첩에게 비록 관저(圍牆)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 사 씨가 옛날 법도나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하는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일부다처제로 인한 첩첩 간의 투기로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투기하지 않는 것이 부녀자의 덕목이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교과서 · 219쪽 26~27행

“하문(下問)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 교 씨는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다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 씨 부인 때문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사 씨가 어질지 못하다고 음해하고, 동시에 자신이 사려 깊고 사 씨의 말을 잘 따르는 후실(첩)이라는 점을 한림에게 드러내려 하고 있다.

교과서 · 220쪽 7~14행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 교 씨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려던 사 씨 부인의 말을 부풀려 모함하고 있다.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여 태후(呂太后)가 척 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와 같이 상대를 폄박하는 말은 교 씨가 꾸며 낸 말에 해당한다. 사 씨가 현숙한 부인이 아니며 자신을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여 한림을 속이려는 교 씨의 간악함이 드러난다.

교과서 · 220쪽 21~23행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 아마도 교 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 유 한림이 사 씨의 성품을 고려하여 교 씨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림은 평소 교 씨를 후히 대하던 사 씨의 행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 - 221쪽 1~8행

아이!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 씨는 문득 문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 교 씨의 모함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평소 교 씨의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한 것에 속아 사 씨가 교 씨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것과, 교 씨에 대한 사 씨의 충고가 진정 교 씨를 위한 것이었음을 서술자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또한 '큰 재앙의 뿌리'라는 표현을 통해 부부와 처첩 간의 문제가 유 한림 집안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교과서 - 221쪽 14~15행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모든 것이 교 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 씨와 동창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 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 결말에서 악인 교 씨와 동창이 처벌을 받고 선인 사 씨가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고 유 한림과 함께 영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사필귀정', '권선징악'이라는 소설의 주제가 드러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 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 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下問)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 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여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으로부터 해 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 후(呂太后)가 척 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A]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 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淸德)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 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 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 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 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 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 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사례할 따름이었다.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 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

[B] 였다. 따라서 사 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 씨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후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 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조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한림은 교 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 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 씨는 다시 참조를 행할 수 없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 사 씨가 아들 인아를 낳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 씨는 문객(門客)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 씨를 모함한다. 교 씨의 흥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 씨는 수월암에서 생활한다. 한편 유 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유 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모든 것이 교 씨의 흥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 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 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신목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간하기 위한 목적 소설이다.
- ②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 ③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씨’가 느끼는 위기감이 ‘교씨’가 저지른 악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④ 악행을 저지른 ‘교씨’가 징벌을 받는 것으로 결말을 맺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사씨’는 부덕(婦德)을 갖춘 인물로 투기하지 않기 위해 ‘교씨’의 음해를 모른 척하고 있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참고로 이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를 읽는 사람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으나 사 씨가 고난에 처해서도 지킨 절개와 한림의 개과한 아름다움이 모두 하늘에 뿌리를 두고 본성에 갖추어져서 그리된 것에 감동함이 아니겠는가. 읽는 사람이 통분하고 눈을 흘기는 것은 또 교 씨와 동청의 악행 때문이 아니겠는가. <중략> 그런데 선생께서 언문(諺文)으로 지으신 것은, 대개 여항부녀(閨巷婦女)들로 하여금 읽고 외우며 보아서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니 참으로 우연한 일은 아니다.



- ① 선과 악을 상징하는 인물을 대립하고 그들을 대립시킴으로써 고전 소설에서 사건 전개에 개연성 부족을 극복하였던 거야.
- ②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사대부 계층뿐 아니라 평민 계층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겠다.
- ③ 인문으로 지어 널리 읽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시 축첩제도에 대한 여항 부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셈이지.
- ④ 외모와 조건으로 결혼하는 풍습이 정치에 미친 영향력을 고발하여 가정과 정치의 연관 관계가 재정립되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지.
- ⑤ 본성은 착하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 현실에 무능력한 양반 사대부 중심의 유교사회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림은 교 씨의 말을 들은 이후로 처첩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 ② 교 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한림의 태도에 대해 원망의 말로 호소하고 있다.
- ③ 사 씨가 질책한 부분은 음란한 음악이 아니라 교 씨가 자신의 미색만 꾸미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 ④ 한림은 교 씨가 사 씨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실제 일을 과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⑤ 교 씨는 첩이라는 지위에 불만과 불안감이 있기에 사 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책들을 꾸미는 것이다.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 ② 가정 내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정황을 해설해주고 있다.
- ④ 악인을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립적인 인물들 간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교 씨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사 씨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교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한림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교 씨는 한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B]에서 서술자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에서 서술자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스물세 살이었다. 그들이 성혼한 지도 또한 십 년 가까이 흘러갔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사 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하였다.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사 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 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양가(良家)에서 쓸 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사 씨를 찾아갔다.

“듣자 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첩이 존문(尊門)에 들어온 지 이미 구 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소실(小室)을 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생육(生育)이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天數)에 달린 것이야.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서른이나 마흔 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스물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스무 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月事)도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는 첩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첩에게 비록 관저(關雎)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 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 후(呂太后)가 척 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 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淸德)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 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 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 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 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 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 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사례할 따름이었다.

(다)

야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 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 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 씨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 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조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한림은 교 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 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 씨는 다시 참조를 행할 수 없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당곡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 김춘택, 『북한집』 중에서

- ① 두 부인을 통해서 당시의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
- ② 위 작품은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까지도 주기에 의미가 있구나.
- ③ 위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고자, 황탄하고 경박한 면을 제외시켰겠군.

- ④ 어질고 사려 깊은 사 씨가 여인의 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교적 도리를 보여주고 있어.
- ⑤ 가정 내의 문제를 바탕으로,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주제로 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있어.

**당곡고등학교 (서울)**

7. (다)의 서술 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이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주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을 직접 평가하고, 상황을 해설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소식의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 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는데, 집안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 두고 옛날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져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 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 김만중, 『서포만필』 중에서

(나)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 김춘택, 『북헌집』 중에서

- ① 윗글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읽힌 작품이겠군.
- ② 윗글이 창작된 시대에서 소설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군.
- ③ 윗글은 황탄하지 않으면서도 경박하지 않은 글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들을 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윗글을 창작했겠군.
- ⑤ 윗글은 주된 독자층이 평민층으로 형성되어 감동과 교훈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겠군.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분석 방법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실적, 사회 고발적, 비판적, 상징적  
**배경** 1970년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시절**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고통과 좌절  
**특징** ①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진행됨.  
 ②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생활상을 잘 드러냄.

**품목 정리**

● 낙원구 행복동

**낙원구 행복동** '난장이' 일가가 사는 빈민촌의 이름

↓

지명을 반어적으로 설정하여 사회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품목 정리**

● 노동자들과 회사의 대조적 상황

<b>노동자</b> 노동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b>회사</b>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회사 상황이 좋아짐.
---------------------------------	---	---------------------------------------

↓

공장이 문을 닫으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거나 아예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노동자들은 회사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지 못함.

**품목 정리**

● 영화가 가지고 간 것의 의미

<b>줄 끊어진 기타</b> 기타는 영화의 공을 상징하는데, 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통해 영화의 꿈이 좌절됨을 알 수 있음.	+	<b>팬지꽃 두 송이</b> 가냘픈 영화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려는 영화의 순수한 성품을 알 수 있음.
---	---	---

↓

**영화의 현재 상황**

-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음.
-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품목 정리**

● 시멘트 담 밖으로 보이는 행복동의 풍경

↓

행복동은 철거 지역으로, 집들이 다 헐려 있는 상태임.

↓

동사무소 건너의 밝고 깨끗한 주택가와 대비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된 비참한 현실을 드러냄.

**품목 정리**

● '난장이' 가족의 집

↓

'난장이'의 조상은 대대로 힘없는 하층민으로 학취의 대상이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가난이 세습되었음.

↓

'난장이'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난 속에서 겨우 미련한 삶의 보금자리임.

**품목 정리**

● '난장이'의 상징적 의미

↓

'난장이' 선천적인 불구로, 굶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감.

↓

경제적 빈곤층, 노동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함.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의 현실을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을 통해 보여 주는 열두 편의 연작 소설 중 하나이다. ‘난장이’인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큰아들 영수와 둘째 아들 영호, 딸 영희는 연작의 다른 작품에도 다시 등장한다.

연작 소설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는 ‘난장이’ 집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들의 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어머니는 더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영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 영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집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여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지상에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결국 달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지상에 남은 이들의 삶 역시 눈물겹다. 인쇄 공장에 다니는 영수와 영호는 과도한 노동 강요에 항의하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영희는 돈 때문에 순수함을 유린당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은 가난의 대물림 문제, 노동 문제, 지식인의 현실 참여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소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인물들이 어린 시절의 꿈을 회상하는 장면이나 달나라에 대한 꿈을 표현하는 장면 등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작품의 비극성을 높인다. 실험적인 구성과 독특한 문체, 분명한 주제 의식으로 수준 높은 문학적성을 획득한 이 작품은 1970년대의 현실을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크리틱 활동 문제**

**1.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파악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나’와 ‘형’이 공장에서 쫓겨난 이유를 짐작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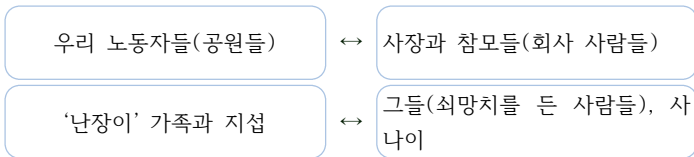
형과 ‘나’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과,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었다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이들은 사장에게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다가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집이 철거되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난장이’ 가족이 의연하게 식사를 한 까닭을 말해 보자.**

집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을 의연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 저녁 식사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집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건하게 식사를 한 것이다. 등

**2. 이 소설의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항 대립의 요소를 찾아보자.**



**(2) 다음 장면을 통해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측해 보자.**

<b>장면 1.</b> 어린 조역이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배를 잡고 웃는 장면	<b>장면 2.</b> 지섭이 사나에게 철거를 따지다가 주먹을 휘두르지만 결국 쇠팅치를 든 사람들에게 몰래를 맞고 끌려가는 장면
---	---

\*장면1: 사장네 집에 있는 나무들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자조적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등  
 \*장면2: 지섭이 ‘난장이’ 가족을 대표하여 저항을 해 보지만, 결국 권력(다수)의 힘에 밀려 패배하고 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지식인의 목소리가 폭력적인 힘에 눌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등

**(3) 작가가 ‘난장이’ 가족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의도를 생각해 보자.**

‘난장이’ 가족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난장이’ 가족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반어적 이름으로 설정함으로써 ‘난장이’ 가족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를 읽고, 이 소설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보기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세계는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분리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난장이’와 그의 가족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만다. 분리된 사회의 벽에 막혀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난장이’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제시해 주지 않는 자본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 전체를 부정한다. 달나라를 향한 ‘난장이’의 꿈과 살인이라는 악을 저지르는 아들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현실적 조건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난장이’ 가족의 모습에서는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1)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시대상과 삶의 모습을 오늘날과 비교하여 보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오늘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 재개발로 집을 잃는 도시 빈민이 발생했다. 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 노동 환경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 재개발 지역의 경우 입주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등

## “빈민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읽기 중 문제

**1. 노동자들은 왜 회사 문을 닫는다는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고 해도 노동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의 밥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집이 철거되기 전 ‘난장이’ 가족이 자신들의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를 말한다. 이는 집과 관련한 ‘난장이’ 가족의 모든 추억뿐만 아니라 대대로 힘없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내력을 응축하고 있는 소재이다.

**3. 지섭이 ‘난장이’ 가족의 집을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대로 힘없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난장이’ 가족들이 힘겹게 마련한 보금자리이며, 그들의 오랜 생활이 응축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구원 질문

교과서 · 226쪽 3~7행

**일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게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임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임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 재개발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기게 된 ‘난장이’의 처지, 노동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는 영수와 영희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1970년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모습을 그려 내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원구 행복동’은 빈민촌인 현실과 대조되는 동네 이름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 226쪽 12~13행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 형(영수)은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와 충분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사장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 운동에 관해 영수가 가진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 226쪽 17~20행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팍팍 퐁퐁 쳤다.

- 노동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 측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겪는 부당한 대우나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 · 226쪽 25행~227쪽 11행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 회사 측이 불황이라고 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자본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교과서 · 228쪽 30행~229쪽 2행

지섬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 '난장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지섬이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작품에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지섬이 감옥에 간 이유는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을 벌였거나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변호하다가 그 일에 연루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교과서 · 229쪽 8~10행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걸을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짐들 공터를 가코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 '난장이' 가족은 자신들의 집이 쇠망치를 든 사람들에 의해 헐리기 전에 고깃국과 고기를 먹으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려 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고기까지 사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 이 집에서 나가야 하며, 앞으로 지낼 곳이 정해지지 않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오랜 세월 함께했던 집에서의 마지막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는 '난장이' 가족의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 230쪽 3~5행

아버지가 바론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 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 아버지('난장이')와 어머니가 일생을 바쳐 가꾸었던 집이 철거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되는 자신들의 집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뒤로 돌아선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이 드러난다.

교과서 · 230쪽 24~26행

"당신이 뒷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가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뒷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 지섬은 '난장이' 가족을 비롯한 백여 세대의 생활 터전을 빼앗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분노는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부, 더 나아가 이 상황을 만든 모순된 사회 구조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험값에 빼앗아 자본가에게 넘기는 19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 갔다. 활판 운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 운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었다. 작은 공장들이 채용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고 해도 낯선 곳이다. 작은 공장이라 작업장은 더 나쁘고 돈도 오르지 않은 채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의 삼사 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이랄 것이 없다.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맘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 줄 사람도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보았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 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았다. 나도 나무 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덕의 나무는 건강합니까?”라고 써어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생리적 피해 진단·외과 수술·건강 유지 관리”라고 써어져 있었다. 함께 지났던 어린 조역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 주었다. 풀숲으로 들어선 형의 바짓가랑이도 이슬에 젖었다.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은 주장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변명하듯 내가 말했다.

“비행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 나설 데가 있어야지.”

“그만 들어가자.”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야.”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중략)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

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A]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때었다. 형은 명희네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발은기침을 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 바른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뻐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맡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사를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발은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송늬를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송늬를 마셨다. 송늬를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들 째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

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 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싸 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식칼·도마 등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바른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넣었다.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삼십 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 오백 년이란 게 도대체 뭘니까?”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땀을 쏟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땀을 쏟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구.”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할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뉘뒤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

[B] 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눌러 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엮으려 했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을 차는 일은 공원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놀이이자 휴식이었다.
- ②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우리가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시멘트 담을 허물었다.
- ③ 회사가 현재 문을 닫게 될 위기를 겪고 있어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 ④ 난장이 가족의 집이 철거될 동안 영희는 가지고 나간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놓고 있었다.
- ⑤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 표현한 이유는 대대로 힘 없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난장이 가족이 마련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서술자가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회상을 [B]는 서술자가 자신의 현재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3. '지섭'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철거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② 생활 터전을 빼앗은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난장이 일가와 철거원 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 ④ 자신과 상대방과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난장이 일가의 형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⑤ 난장이 일가를 의식하면서도 철거된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4. 뒷글의 '팬지꽃'과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치니,  
찬 기운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봄 뜻이야 앗을소냐  
-안민영, '매화사'

- ① '팬지꽃'은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화자가 예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② '팬지꽃'은 인물의 희망을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 ③ '팬지꽃'은 인물이 지닌 소망을 의미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④ '팬지꽃'은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나약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⑤ '팬지꽃'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매화'는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5. 뒷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세계는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분리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난장이'와 그의 가족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만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게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딱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 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나)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태었다. 형은 명희네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발은기침을 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의하면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 바른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뻐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송늬를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송늬를 마셨다. 송늬를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 오백 년이란 게 도대체 뭘니까?”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댁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댁을 놓은 게 아납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도.”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할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낙뒤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놀려 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 김 사장의 집에서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영희는 가족의 입주권을 찾아 도망친다. 입주 신청을 마치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식구들이 이미 떠나 버렸고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당곡고등학교 (서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을 빼앗기 위해 축구를 하라는, 회사 측의 술수라고 볼 수 있다.
- ② ㉡: 명희네 집이 이미 헐려서, 그 집의 철거된 잔재를 땀감으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 철거 되는 순간까지도, 가족의 삶이 갖든 소중한 집에서의 권리와 애정이 갖든 마지막 식사만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 ④ ㉣: 오백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갖든 소중한 건축물을 허문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 ⑤ ㉣: 삶의 터전이 무너짐으로써, 영희의 순수하고 가냘픈 영혼이 곧 상처받고 훼손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밑줄 그은 시어 중, 윗글에서의 '난장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 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 ②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김수영, '풀'
- ③ 산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젓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나희덕, '망끝'
- ④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 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얽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당곡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 렌즈를 지키는 일이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 내가 말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에서

[2]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 ① <보기>-[1]의 ‘달’은 윗글에서 아버지가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의지의 근원이다.
- ② <보기>-[1]의 아버지의 말은 윗글의 ‘나’가 아버지와 지섭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된다.
- ③ <보기>-[1]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달’에서의 생활은 윗글의 지섭이 이루어 낸 투쟁의 결과물이다.
- ④ <보기>-[2]를 참고하면, 윗글의 ‘행복동’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통해 이룩한 이상 세계이다.
- ⑤ <보기>를 참고하면, ‘달’에서 천문대 일을 보는 것은, 윗글의 ‘행복동’에서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일치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차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중략)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 줄 사람도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보았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았다. 나도 나무 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목의 나무는 건강합니까?’라고 씌어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생리적 피해 진단·외과 수술·건강 유지 관리’라고 씌어져 있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 주었다. 풀숲으로 들어선 형의 바짓가랑이도 이슬에 젖었다. (중략)

# “양반 똥똥” 문력 명피

핵심 정리		꼼꼼 정리	
교과서 239-240쪽		교과서 239-240쪽	
<b>갈래</b>	가면극, 민속극, 탈춤 대본	<b>등장인물</b>	
<b>성격</b>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비판적	<b>말뚝이</b>	• 서민층을 대표함. • 양반 비판의 주체
<b>배경</b>	조선 후기 황해도 봉산	<b>양반 삼 형제</b>	• 허위에 찬 양반층을 대표함. • 비판·풍자의 대상
<b>주제</b>	양반의 무지와 허세에 대한 조롱과 풍자		
<b>특징</b>	①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 ②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서민과 양반의 언어가 혼재함. ③ 언어유희, 열거, 과장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함.		

꼼꼼 정리		꼼꼼 정리	
교과서 239-240쪽		교과서 239-240쪽	
<b>계담구조</b>		<b>양반의 무지와 허세에 대한 풍자</b>	
<b>시작</b>	“쉬이.”	<b>시조 율기</b>	민요나 잡가와 다를 바 없는 시조를 읊음.
<b>전개</b>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b>운자 놀이</b>	역지로 운자만 맞춘 의미 없는 문장을 지음.
<b>끝</b>	모두 춤을 춤.	<b>파자 놀이</b>	한자를 이용한 놀이가 아닌 수수께끼를 함.
			양반의 무지를 폭로하고 허세를 조롱함.

**꼼꼼 정리** 교과서 239-240쪽

**취발이의 신분**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음.  
→ 돈이 많음.
- 힘이 무량대각이고, 날랜이 비호같음.  
→ 능력이 있음.
- 양반의 전령에 쉽게 잡힘.  
→ 양반보다 신분이 낮음.

↓

조선 후기 신흥 상인 계층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국가 무형 문화재 제17호인 「봉산 탈춤」의 대본 중 일부이다. 황해도 봉산에 전해지는 산대놀이 계통의 탈춤으로, 제1과장 ‘사상좌춤’, 제2과장 ‘팔먹중춤’, 제3과장 ‘사당춤’, 제4과장 ‘노장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 제7과장 ‘미알할미·영감’ 등 전체 일곱 개의 과장으로 짜여 있다. 각 과장에는 말뚝이, 취발이, 노장, 소무, 미알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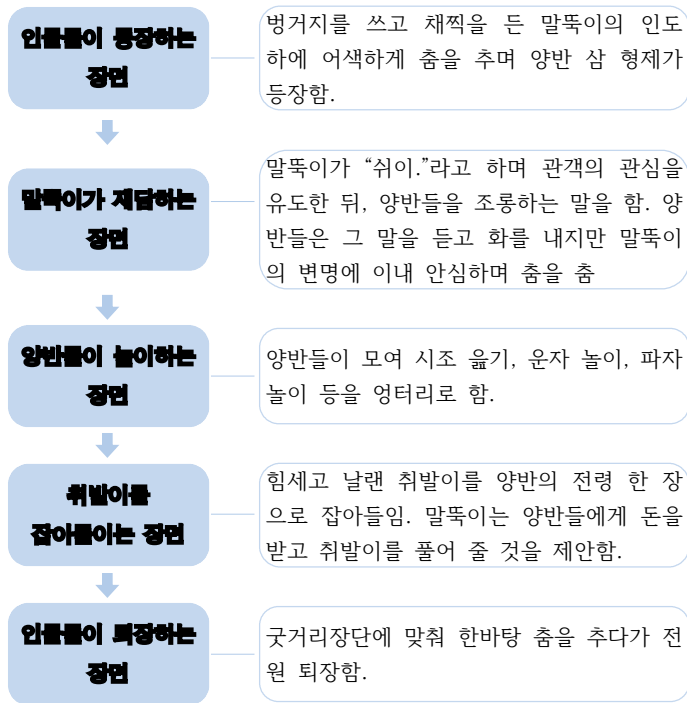
본문에 제시된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은 하인인 말뚝이가 양반들을 희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양반들이 위엄을 차리고 말뚝이를 꾸짖지만 실제로 양반들은 말뚝이에게 거둬 속아 넘어간다. 생원, 서방, 도령은 양반의 체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무식함이 낱알이 폭로된다. 표현 면에서는 서민들의 비속한 일상어를 바탕으로 한 익살과 과장된 표현, 언어유희 등을 주로 사용하여 골계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어리석고 부패한 양반층을 직접 비판하거나 우회적으로 풍자함으로써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정신과 함께 발달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봉산 탈춤」은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남성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비판,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이 주를 이루어 조선 후기의 현실과 서민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양반 말뚝이” 드라마틱한 행동 장면**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1)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대사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

등장인물	성격
양반 삼 형제	어색한 춤을 추며 방정맞게 등장하고 말뚝이의 조롱에 쉬이 넘어가며, 형편없는 글을 짓고 말도 안 되는 파자 놀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 매우 어리석고 무능하면서도 허위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인물됨을 알 수 있다
말뚝이	하층민이지만 재치 있는 언행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의 호통을 슬기롭게 모면하는 것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저항 의식을 지닌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 이 작품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재담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



2. 다음 활동을 통해, 가면극의 특징을 이해해 보자.

(1) 다음 대사에서 두드러진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 보자.

(가) **말뚝이:**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나)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詠詩調)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혔습니다.

<b>표현상 특징</b>	(가)에서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나)에서는 지명을 단순 나열한 내용 없는 문장을 명문인 척하는 언어유희, (다)에서는 단어의 뜻과 글자의 동일성을 이용한 수수께끼에서 언어유희가 드러난다.
<b>효과</b>	(가)~(다)에서는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을 조롱함으로써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고 양반의 허세를 풍자한다.

(2)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이나 그 밖의 인물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찾아보고, 여기에 나타난 가면극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해 보자.

말뚝이가 “쉬이.” 하며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고 “양반 나오신다아!”라고 소리치는 장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며 관객이나 악공에게 말을 거는 장면 등에서 등장인물이 무대 밖의 인물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을 통해 전통 가면극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었고, 무대 밖의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음은 이 작품의 ‘중략’ 부분에 나오는 대사와 지시문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면극의 무대 공간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해 보자.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크게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니다. (중략)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특정한 무대 장치 없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극 중 공간을 설정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조선 후기 가면극의 사회적 기능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보기

우리의 민속극 중에서 가면극은 풍자 정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등장인물들이 쓰는 가면 자체가 양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면은 풍자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자 주체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 그 결과 가면극은 다른 민속극보다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가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모순적인 사회 현실이나 부패한 지배 계급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면극은 이러한 서민 의식을 표출하고 부정적인 사회상을 폭로하며, 나아가 사회의 변혁과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였다.

**“양반 똥똥” 양반 똥 똥똥**

**1. 말뚝이의 대사 중 ‘쉬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말뚝이가 “쉬이.”라고 하자 음악과 춤이 멈춘다. 이때 “쉬이.”는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며, 춤판을 마치고 새로운 사건 혹은 재담이 시작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2. 말뚝이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추측해 보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라는 말을 통해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 주자는 말을 통해 권력층의 부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반 똥똥” 양반 똥똥**

교과서 · 238쪽 9~11행

**양반 삼 형제:** (생님과 시망님은 언쟁이이며(생님은 언쟁이 두 줄, 시망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벌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농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 언쟁이, 입이 삐뚤어진 모습 등 인물의 비정상적인 외양을 묘사하고, 양반이라는 신분과 걸맞지 않은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교과서 · 238쪽 16~18행

**말뚝이:** 개갈당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지배층 신분인 ‘양반(兩班)’을 개갈당(개의 가족)의 ‘양’, 개다리소반(삼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흰 작은 발상)의 ‘반’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교과서 · 238쪽 24행~239쪽 1행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굳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말뚝이의 조롱을 듣고 호통을 쳤던 양반들이 말뚝이의 변명에 쉽게 넘어가면서 일시적인 화해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양반들이 겉으로는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우매한 인물됨을 알 수 있다.

교과서 · 239쪽 2~16행

**말뚝이:** 쉬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어!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暄譯)를 금하라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 「봉산 탈춤」의 제6과장의 앞부분에서는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과 같은 재담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강조되고 관객들은 재미와 함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교과서 · 239쪽 23~28행

**생원:** 쉬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 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詩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중략)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 생원은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시조 읊거를 제안한다. 양반들이 읊는 시조는 전형적인 탄로가(늪음을 서리워하는 노래)이다. 이에 말뚝이는 서민들의 생활 감정이 담겨 있는 민요를 부른다. 양반이 읊는 시조가 민요나 잠가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양반의 무지함과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한편, 민요 가사의 '무덤'을 통해 늪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교과서 · 240쪽 3~21행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름 터이니 들어 보게, (영 시조(詠詩調)로) “율곡(율곡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靈)이라.” (중략) /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짓고 있는 자가 무슨 찰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잠세, 그것은 논입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잘 맞혔습니다.

- 양반들은 시조 읊거에 이어 운자 놀이(운자에 맞춰 글을 짓는 놀이)와 파자 놀이(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내는 수수께끼)를 한다. 이러한 유희는 당시 양반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며 즐기던 놀이이다. 양반 형제가 지은 글과 파자는 모두 엉터리인 데도 서로 칭찬함으로써 해학성이 부각된다. 이를 통해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고 풍자한다.

교과서 · 240쪽 29~30행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옳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혀있소.

○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생원이 써 준 전령 한 장으로 손쉽게 잡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에서는 비록 무지하고 무능하더라도 양반 계층이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취발이는 힘세고 날래며 돈이 많지만, 양반보다 신분이 낮은 인물이다. 이를 종합할 때 취발이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상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 241쪽 9행~13행

**말뚝이:** 생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뭘 하오? .....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취발이에게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자는 말뚝이의 제안을 양반들이 수용하면서 극적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다. 이 장면은 부패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 주면서, 조선 후기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A]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廛)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B]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매주 밭드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걸결이 다 찾아다녀도 섯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디다.

생원 : 이놈, 뭐야! <중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룬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록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록줄록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섯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여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녀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녀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㉔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쌤님, 말씀 들으시오. ㉔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쌤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쌤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긱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윷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재담을 시작하는 말을 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며 대상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동일한 음절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경어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대상을 높이면서도 이면적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을 드러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당시에는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을 풍자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였는데, 이는 '비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 '개질량', '개다리소반' 등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의 위엄을 격하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 '한 발 가웃'이나 되는 '육모까치' 등을 맞추어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 '버드나무 훌뜨기', '바가지장단'과 같이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 '노새 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탄다는 표현을 통해 양반과 말뚝이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 '울장'을 꽃아 '깃'을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윷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시조와 주제가 같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양반의 허세가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 ㉡ : 학식을 자랑하는 놀이는 결국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전략하고 있다.
- ㉢ ㉢ : 기존의 신분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통해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 당대에도 양반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 ㉤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근거로 부정을 저지른 취발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윷글의 [A], [B]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민속극이란 분장을 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온 민간 전승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윷글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극은 서양의 연극과 다르게 \_\_\_\_\_  
\_\_\_\_\_. 이와 같은 민속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함으로써 민속극의 형식과 내용은 전승되면서도 공연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중략>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들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썬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나)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뿔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랜이 비호(飛虎) 같은데, 썬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디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썬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썬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썬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김진옥·민천식 구술, 「봉산탈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주의를 환기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 ㉢ ㉣ :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 ㉤ ㉥ :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 ㉧ : 관객이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사이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민속극의 특징을 드러낸다.
- ㉨ ㉩ : 양반의 위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후 갈등이 해소되어 재담이 마무리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6.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양반 문화의 일종인 시조이며 양반이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읊은 것이다.
- ㉡ ㉡는 평민들의 노래인 민요로서 ㉠와 같이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노래이다.
- ㉢ ㉢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를 통해 말뚝이는 양반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 ㉤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한 말장난으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 ㉥ ㉠, ㉡, ㉣는 결국 양반의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7. (다)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저 하늘이 백성을 만들 때 네 가지 부류로 만들었다. 넷 중 가장 존귀한 것은 선비이니, 이를 곧 양반이라 칭하며 더 이로운 것은 없다. 밭을 갈지도 않고 장사를 하지도 않지만, 글만 조금 하면 크게는 문과(文科)에 오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진사(進士)는 할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하여 받는 홍패(紅牌)라는 것은 크기는 두 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돈주머니와 같다. 진사(進士)는 나이 삼십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 높은 음관(蔭官)이 될 수 있으니 다른 높은 벼슬도 할 수 있다. 꺾바퀴는 일산(日傘) 바람에 휘어지고 배는 하인들의 ‘예’ 하는 소리에 불려진다. 방에는 귀엣고리 요란한 기생들이요, 정원 나무에는 목청 좋게 우는 학을 키운다. 가난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살아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을 불러다가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부

로 한들 그 누가 나를 닦하라. 그들의 코에 잿물을 들어 부은들, 상투를 잡아맨들, 수염을 잡아 뽑은들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라.”

부자는 그 문서가 씌어지던 중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둬. 정말 맹랑하구려. 장차 나를 도적으로 만들 셈이오?”

말을 마치자마자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도망가 버렸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 양반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횡포가 있었다.
- ㉡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다.
- ㉢ 천민 계층이 양반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 ㉣ 신분의 매매가 용인되어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다.
- ㉤ 부를 축적하고 윤리의식을 갖춘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8. 민속극과 현재의 연극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민속극	현재의 연극
㉠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짐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	무대 공연 장치 없이 표현함	무대장치를 사전에 제작함
㉢	관객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대체로 관객은 극에 개입하지 않음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함
㉤	대체로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피카레스크식 구성임	대체로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을 이루는 구성임

- ㉠ ㉠
- ㉡ ㉡
- ㉢ ㉢
- ㉣ ㉣
- ㉤ ㉤



# “평민지” 평민 평민

## 핵심 정리

**갈래** 희곡, 장막극, 사실주의극  
**성격** 사실적, 비극적, 현실 비판적  
**배경** 전쟁 직후(1960년대 후반) 서울 중로 한복판  
**주제**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특징** ① 평범한 한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냄.  
 ② 낡은 한옥과 고층 건물의 대비, 최 노인과 자식들의 대조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드러냄.

## 공공 정리

### ● 무대 배경



▶ 최 노인네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상황과, 친구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줌.

## 공공 정리

### ● 작품에 반영된 당시 사회상

- 신식 건물과 건축 공사
- 전차와 자동차의 소음
- 공동 수도 사용
- 낡은 기와집



- 전쟁 이후 도시가 급격하게 재건되어 가고 있음.
- 시설이 미비하고 전통적 삶의 모습이 남아 있음.

## 공공 정리

### ● 최 노인과 어머니의 인식

- 강 약방의 처방에 깊은 신뢰를 보임.
- 동네의 옛 모습을 그리워함.



과거 지향적이며 전통적 가치관을 지님.

## 공공 정리

### ● 집을 둘러싼 갈등

**최 노인**

- 예전부터 살아온 집에 애착을 지니고 이사를 거부함.
- 신식 건물에 불만을 가짐.



**자녀들**

- 불편하고 비좁은 구식 집에 불만을 가짐.
- 신식 건물에 동경을 보임.

▶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인물 간의 대립으로 표현함.

## 공공 정리

### ● 비극의 심화

**차도의 기적 소리**      **애상적 경음악**  
 빠르게 발전해 가는 도시의 비극적 상황이 닥친 최 노인 일가의 모습

### 부조화음

-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울리하는 최 노인 일가의 비애를 상징함.
- 비극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함.

꼼꼼 정리

● '불모지'의 의미

구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li> <li>• 예전의 힘을 상실함.</li> </ul>
신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함.</li> <li>• 삶의 방향을 상실함.</li> </ul>



'불모지'는 전후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모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척박한 현실을 의미함.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최 노인 일가의 불행을 사실적으로 그린 희곡이다.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의 모습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는 신세대의 비극을 통해 전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전후 문학작품이다.

등장인물 중 최 노인은 여러 면에서 지난 세대를 대표한다. 그가 운영하는 혼구점은 구식 결혼에 사용되는 용품을 팔거나 대여하는 곳이다. 그런데 결혼 문화가 신식으로 바뀌면서 그의 가게는 쇠퇴해 간다. 그가 사는 집 역시 구식이라 할 만한 오래된 한옥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시대에 최 노인 같은 구세대의 인물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새로운 세대가 최 노인만큼의 성실함과 안정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 작품에서는 최 노인의 네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한다. 최 노인의 자녀들은 혼구점을 정리하고 새집으로 이사 가자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최 노인의 고집만을 원망한다. 의견이 다른 가족 간에 점차 불화가 커지던 중 급기야 최 노인의 큰아들은 강도질을 하러다가 체포되고 딸은 사기를 당한 후 이를 비판하여 세상을 등지고 만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이후 현실의 황폐한 모습을 빌딩 숲에 가려진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보여 준다. 이러한 갈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이 작품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을 적절히 배치하고 긴장감 넘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불모지**” **크리스틴 램랑** **희곡**

1. 이 희곡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무대' 지시문을 바탕으로 '변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상상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변화한 상가와 대비되어서 낡은 집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 밝고 활기찬 느낌의 상가와 달리 오래된 기와집은 어둡고 음침하게 느껴진다. 등

(2) '집'에 대한 최 노인과 경재의 생각 차이를 비교해 보자.

<p><b>최 노인</b></p> <p>집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생각하며 예전부터 살아온 낡은 기와집을 지키고 싶어 함</p>		<p><b>경재</b></p> <p>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식 건물의 가치를 긍정하고, 낡고 오래된 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함.</p>
---	---	--

(3) 이 희곡에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는 요소를 찾아보자.

경수가 강도 사건을 벌인 뒤에 취직 통지서가 도착함. / 경수가 끌려 나간 후 애상적인 경음악이 차도의 기적 소리와 부조화를 이루며 울려 옴. 등

**2. 다음 활동을 통해, 이 희곡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아래에 보자.**

**(1) 이 희곡에서 엿볼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해 보자.**

전후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 가정에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 세대 갈등, 가치관의 갈등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웠다. 등

**(2) 다음을 참고하여, 작가가 작품의 제목을 『붙모지』로 붙인 이유를 추측해 보자.**

1950년대 중반 이후는 한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의 혼란한 사회였다. 당시 발표된 희곡 작품들은 이러한 어둡고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50년대는 새로운 문명과 서구화에 의하여 구세대가 쇠퇴해 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구세대의 몰락은 곧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전후의 곤궁함은 신세대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희곡 작품에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시의 신세대 역시 파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구세대는 힘을 잃고, 신세대의 삶은 불안전하고 불안하였다. ‘붙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매마른 땅이라는 뜻으로, 구세대와 신세대가 모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당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붙모지” 읽기 중 문제

1. 식구들이 ‘낡은 기와집’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어 와야 하는 점과, 주변의 신식 건물이 햇빛을 가려 대낮에도 어둡고 습한 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2. 최 노인과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최 노인의 성향은 어떠한가?

오래전부터 교류해 온 강 약방에 신뢰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변의 새 건물에 적대감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완고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3. ‘취직 통지서’가 하루만 앞서 왔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취직 통지서’가 하루만 앞서 왔다면 경수가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최 노인 일가가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취직 통지서가 늦게 도착함으로써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한다.

4. 경운이 경수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달리 현실에 경솔하게 대처하여 집안을 몰락하게 만든 오빠의 비도덕적이고 한심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 때문이다.

## “뽕모지” 수필 읽기

교과서 · 246쪽 7~20행

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 …… 잠시 후 경재가 물지게를 지고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에다 부러 놓는다.

○ 연극 무대를 설명하는 무대 지시문이다. ‘매끈한 고층 건물’ 사이에 위치한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폐가처럼 묘사하며 주변 풍경과 대조함으로써, 전후 사회에서 충돌하는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최 노인의 기와집을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풍겨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 최 노인 일가의 무기력한 상황과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과서 · 246쪽 21~24행

경재: 어우, 오늘은 왜 사람이 그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장판인걸! (하며 할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짐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럴겠지…….

경재: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

○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공동 수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 이후 도시가 재건되어 가던 당시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재의 말을 통해 수도 시설이 마련된 신식 건물과 달리 최 노인의 집에서는 물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 247쪽 2~11행

경재: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략)

경운: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 와! 물이 끓어지면 어떡 할라구…….

○ 경재의 말을 통해 낡은 기와집에 애착을 가진 인물이 가족 중에 최 노인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세대를 상징하는 최 노인은 신세대인 경재와 집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대립한다. 아버지와 동생의 갈등 상황에서 체치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경운이 밝고 긍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 노인은 옛것을 지키려는 사고방식을 지닌 완고한 인물로 그려진다.

교과서 · 248쪽 1~16행

**최 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 약방의 치방이 제일이야! 내 정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 주거든!

**어머니:** 하기가 이 동리에서 옛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 약방하구 우리 집뿐인 걸요. (중략)

**최 노인:** 사실이야! 벌어먹을 짓! (과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마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 강 약방에 대한 신뢰와는 달리 주변의 새 건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 노인의 말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의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신세대인 경운은 아버지와 달리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교과서 · 248쪽 20~22행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 보라는 듯이 저마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 이웃을 배려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달리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건물을 쌓아 올리기만 하는 이기적인 근대적 가치관을 최 노인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자신의 삶의 태도와 다른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최 노인의 적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교과서 · 249쪽 1~5행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기 도모지 자라질 않는 단 말이야! ……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밭세야 밭세!

○ 주변 환경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화단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든 최 노인 일가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풀이 나지 않는 땅이라는 뜻으로, 최 노인은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불모지로 보았다. 또한 불모지는 최 노인 일가의 몰락을 통해서 구세대와 신세대 모두 뿌리내리고 삶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척박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씨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 들에게 내 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경운: 피해라뇨?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모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 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중략)

어머니: 아……. 하나님도 변덕스럽지! 하루만 앞서 소식을 주셨어도 아들 하나 살릴 텐데…….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람! 아이구…….

경수: 무슨 얘기에요?

경재: (마루 끝에 놓인 편지를 보이며) 취직 통지서가 왔었어요……. 영등포에서…….

경수: (고랑이 채인 손으로 편지를 받아 보며) 고마운 친구야……. 그래도 그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 주었군…….

(발작적으로 웃으며) 나에게 주는 송별 꽃다발

치고는 최고군! 헛하……. (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간다.)

(중략)

형사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밖이 어수선해지면서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형사: (소리만) 비켜! 저리 가라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저리 가!

이 말과 함께 군중들의 웅성대는 소리도 멀어지며 골목 안은 전처럼 조용해진다.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와 이웃 다방에서 울려오는 애상적인 경음악의 부조화음이 유난히도 자극적이다.(후략)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 노인과 경재의 집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② 그렇지.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최 노인과 경재 등 인물 간의 대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 ③ 맞아. 그리고 우리는 최 노인의 대사를 통해 점차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거구.
- ④ 경수의 강도 사건 이후 취직 통지서가 도착하는 점은, 후에 최 노인 일가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겠군.
- 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제목 ‘불모지’는 신세대와는 달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구세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라 할 수 있겠군.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석과 무대의 넘나들이 자유롭다.
- ② 무대의 공간 설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③ 대조적 관계에 놓인 건물을 설정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한 명의 인물에 의해 서사 흐름이 진행된다.
- ⑤ 대립하는 인물 간 존재하는 동질적 시선을 그려내어 해당 결말을 표현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노인:** 참 그 고약은 다 붙었어?  
**어머니:** 예. (허리를 가볍게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최 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 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청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 주거든!  
**어머니:** 하기가 이 동네에서 옛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 약방하구 우리 집뿐인걸요.  
**최 노인:**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서 산지가 꼭 사십칠 년이고 그 강 약방이 사십 년이 되니까……. 그리고 보면 나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오십 년 동안에 이웃 얼굴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 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기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썽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깻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께 내 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총총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경운:** 피해라뇨?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모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흥내를 내며) 역사는 강처럼 설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상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헴!

중략 부분의 줄거리 ▶ **최 노인**은 가족의 성화에 일단 집을 내놓기로 한다. 그런데 **경수**는 아버지가 헐값에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막으려 하고, **최 노인**은 그러한 **경수**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오해하여 심하게 꾸짖는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다.

**어머니:** 경수야! (하며 **경수**의 가슴팍을 파헤치듯 몸부림친다.)  
**경수:**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이미 눈물도 말라 버렸어요. 제가 없더라도 **경재**가 제 뭇까지 효성을 바칠 거예요…….  
**어머니:** 아……. 하나님도 변덕스럽지! 하루만 앞서 소식을 주셨어도 아들 하나 살릴 텐데…….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람! 아이구…….  
**경수:** 무슨 얘데요?  
**경재:** (마루 끝에 놓인 편지를 보이며) 취직 통지서가 왔어요……. 영등포에서…….  
**경수:** (고랑이 채인 손으로 편지를 받아 보며) 고마운 친구야……. 그래도 그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 주었군……. (발작적으로 웃으며) ㉣나에게 주는 송별 꽃다발 치고는 최고군! 헷하……. (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간다.)

땅에 떨어진 편지를 **경재**가 줍는다. 이때 대문이 열리며 **경운**이가 마치 유명처럼 들어온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았다. **경운**과 마주친 **경수**는 화석처럼 서서 **경운**을 응시한다.

**경수:** (속삭이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경운**아! 용서해라…….  
**경운:** ㉤왜 남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요! (하며 외면을 한다.)  
**경수:** (입술가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알겠다……. 그렇지! 관계있을 리가 없지…….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경재**야…… 아버님을……. (하며 휙 돌아서 나간다.)  
 형사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밖이 어수선했지면서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형사:** (소리만) 비켜! 저리 가라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저리 가!

이 말과 함께 군중들의 웅성대는 소리도 멀어지며 골목안은 전처럼 조용해진다.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와

이웃 다방에서 올려오는 애상적인 경음악의 부조화음이 유난히도 자극적이다.

어머니: (대문을 쓸어안을 듯이) 경수야! 경수야!

경운은 말없이 마루로 올라 방으로 들어간다. 최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있고 경재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다. 침묵이 흐른다.

- 차범석, '불모지'

**신목고등학교 (서울)**

**3. 윗글과 <보기>의 인물들이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 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체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옅한 것, 옅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준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년에 고작 삼천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 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땡겼다. 네 어머니도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 이태준, <돌다리>

- ① <보기>의 아버지 : 세상살이에 경제적인 이익만이 전부는 아니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정과 삶의 추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간과하는 것 같아요.
- ② 최 노인 :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도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 ③ 윗글의 어머니 : 강 약방 빼고는 이웃들은 모두 이사를 갔으니 우리도 세상 변해가는 모양에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 ④ <보기>의 아들 : 순전히 제 욕식만을 위해 땅을 팔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춰 실리를 추구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 ⑤ 경재 : 두 아버지들은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없어요.

**신목고등학교 (서울)**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을 통해서 최 노인은 변화 하는 도시의 모습을 ‘불모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신세대의 몰락을 의미한다.
- ③ ㉢은 ‘사후약방문’으로 경수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취직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의미이다.
- ④ ㉣에서 ‘송별 꽃다발’은 취직 통지서를 의미하며, 자신(경수)의 처지에 대한 우의적이며 역설적인 표현이다.
- ⑤ ㉤은 경수의 잘못된 현실 대처를 원망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5. ㉡의 표현 효과에 대해 15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1막

무대 ▶ 변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 정면에 유리문이 달리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 있고, 좌편으로 기억 형으로 굽어서 부엌과 장독대, 유리문 저쪽은 가게. 우편으로 대문을 끼고 헛간과 방 하나의 판 채가 서너 평이 못 넘는 좁은 뜰을 에워싸고 웅크리고 앉았다. 해묵은 지붕에는 푸른 이끼며 잡초까지 자라나서 오랜 풍상을 겪어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말해 주는 듯하다. 배경으로 면목이 일신해져 가는 매끈한 고층 건물의 행렬이 엿보이고, 좌우편에도 역시 삼사 층이나 되어 보이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서 이 낡은 기와집을 거의 폐가처럼 멀시하고 있다. 좌편 건물은 아직도 건축 공사가 진척 중에 있는지 통나무로 엮어맨 작업 보조대에 거적때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로다. 이처럼 대척적인 주변의 장어로 말미암아 이 낡은 집 안팎에는 온종일 햇볕이 안 드는 탓인지 한층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찬바람처럼 풍겨 나온다. 때는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 막이 오르면 ㉠**질주하는 전차며 자동차의 소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뜰가에서 경운이 함석 통에 담긴 빨래를 빨고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 좌편 담 아래에 마련된 조그마한 화단 앞엔 아까부터 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화초며 푸성귀들을 손보고 있다. 입에 물린 파이프에서 이따금 뿜어지는 담배 연기가 한가롭다. 잠시 후 경재가 물지게를 지고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에다 부려 놓는다.

경재: 어유,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장판인걸! (하며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럴겠지…….  
 경재: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 물만 긴다가 내년 봄엔 낙제하게 생겼는걸요! 하루 이틀도 아니구…….  
 최 노인: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경운: 애도 속없는 소리 잘하긴 경애 언니 닮았나 봐!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경재: 살기 싫으면 딴 데로 옮기면 될걸 왜 이런 계막지 굴속에서 산다는 거요?  
 최 노인: (눈을 크게 부릅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언제?  
 경재: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 노인: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경재: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절을 뿜에 쓰게요? 도깨비나 날걸…….  
 최 노인: (약간 핏대를 올리며)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지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눔아!  
 경재: (못마땅한 낯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최 노인: (휙 돌아서며) 뭐, 뭐야?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 최 노인은 가족의 성화에 일단 집을 세놓기로 한다. 그런데 경수는 아버지가 혈값에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막으려 하고, 최 노인은 그러한 경수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오해하여 심하게 꾸짖는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다.**  
 어머니: 경수야! (하며 경수의 가슴팍을 파헤치듯 몸부림친다.)  
 경수: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이미 눈물도 말라 버렸어요. 제가 없더라도 경재가 제 뭇가지 효성을 바칠 거예요…….  
 어머니: 아……. 하나님도 변덕스럽지! 하루만 앞서 소식을 주셨어도 아들 하나 살릴 텐데…….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람!** 아이구…….  
 경수: 무슨 얘데요?  
 경재: (마루 끝에 놓인 편지를 보이며) 취직 통지서가 왔었어요……. 영등포에서…….  
 경수: (고랑이 채인 손으로 편지를 받아 보며) 고마운 친구야……. 그래도 그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 주었군……. (발작적으로 웃으며) ㉣**나에게 주는 송별 꽃다발** 치고는 최고군! 핫하……. (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간다.)

땅에 떨어진 편지를 경재가 줍는다. 이때 대문이 열리며 경운이가 마치 유령처럼 들어온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았다. 경운과 마주친 경수는 화석처럼 서서 경운을 응시한다.

경수: (속삭이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경운아! 용서해라…….  
 경운: 왜 남의 이름을 불리요?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요! (하며 외면을 한다.)  
 경수: (입술가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알겠다……. 그렇지! 관계있을 리가 없지…….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경재야…… 아버님을……. (하며 휙 돌아서 나간다.)  
 형사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밖이 어수선해지면서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형사: (소리만 비켜! 저리 가라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저리 가!  
 이 말과 함께 군중들의 웅성대는 소리도 멀어지며 골목 안은 전처럼 조용해진다.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와 이웃 다방에서 울려오는 애상적인 경음악의 ㉤**부조화음**이 유난히도 자극적이다.  
 어머니: (대문을 쓸어안을 듯이) 경수야! 경수야!  
 경운은 말없이 마루로 올라 방으로 들어간다. 최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있고 경재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다. 침묵이 흐른다. (후략)

- 차범석, '불모지'

**청석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토대로 이해한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낡은 기와집은 오랜 전통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지니고 있군.
- ② 최 노인은 상대의 의견에 대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군.
- ③ 최 노인은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군.
- ④ 경수는 결국 새로운 삶이 좌절된 어머니의 과거를 지웠군.
- ⑤ 실재가 아닌 소리만으로도 등장인물들을 대신할 수 있군.

**청석고등학교 (서울)**

**7. ‘낡은 기와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가족들의 희망이 집약된 장소이다.
- ② 전통사회와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보수적 공간이다.
- ③ 작품 제목의 상징적 의미를 압축하고 있는 유일한 소재이다.
- ④ 등장인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절망적으로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 ⑤ 주인공이 자신의 가치관이 허망함을 깨달으며 자책하는 대상이다.

**청석고등학교 (서울)**

**8. 윗글에서 장면의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하는 요소로서 관련이 가장 부족한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50년대 중반 이후는 한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의 혼란한 사회였다. 당시 발표된 작품들은 이러한 어둡고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50년대는 새로운 문명과 서구화에 의하여 구세대가 쇠퇴해 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구세대의 몰락은 곧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전후의 곤궁함을 신세대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시의 신세대 역시 파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① 최 노인의 몰락은 자식들의 성공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보기>에서 언급하는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군.
- ③ 전후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모습을 윗글에서 발견할 수 있군.
- ④ 최 노인으로 대표되는 구세대는 새로운 문명에 의해 힘을 잃어가고 있군.
- ⑤ 경운과 경수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신세대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은 시대의 모습과 연결되는군.

**홍성고등학교 (충남)**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화 과정에서 겪는 가치관의 변화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조적인 배경 및 인물 설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낡은 기와집’을 통해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도시화가 진행되는 주변 풍경을 묘사하여 신세대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최 노인은 ‘집’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여 지키고자 하나 경쟁은 오래된 집에서 이사하고 싶어 한다.

IV-1 찬기파랑기

1.④ 2.① 3.음성 상징어는 없음 4.1)무스미 굶을 쫓누  
아저 2)잣사가지 5.③ 6.④ 7.④ 8.⑤ 9.④ 10.② 11.②  
12.⑤ 13.③ 14.나라: 맑고 깨끗한 모습, 지벽: 원만하  
고 강직한 성품, 잣사가지: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  
상 15.⑤ 16.⑤ 17.④ 18.향찰, 낙구 19.④ 20.⑤ 21.  
화판(화랑의 우두머리) 22.③ 23.① 25.① 26.⑤ 27.⑤  
28.④ 29.⑤ 30.나라: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지  
벽: 기파랑의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잣사가지: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

IV-1 시조 세 편

1.① 2.④ 3.③ 4.③ 5.③ 6.① 7.② 8.② 9.① 10.⑤  
11.③ 12.③ 13.떠나려는 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  
내 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회한임. 14.누  
군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의 벼슬보다  
낫다고 하던데 천자의 자리가 이만하라 / 속세의 삶  
보다 자연 속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함. 15.⑤ 16.①  
17.도치나 행간 걸침을 통해 중의성을 가짐. 18.㉠:  
임 ㉡: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임이 구태여 갔으  
랴마는, (임을) 보내고 19.③ 20.⑤ 21.③ 22.③ 23.①  
24.③ 25.㉠'제'는 임을 의미 ㉡'제'는 화자를 의미  
26.말습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27.① 28.  
② 29.⑤ 30.④ 31.④

IV-1 수의 비밀

1.② 2.④ 3.⑤ 4.㉠: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확하  
기 ㉡: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5.⑤ 6.④ 7.⑤  
8.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정확하므로 그때에 수를 완  
성하려고 / 수 안에 넣을 아직 가치 있는 보물이 없  
기 때문에 9.③ 10.③ 11.④ 12.④ 13.④ 14.⑤ 15.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16.② 17.⑤ 18.  
1)㉠: 임과의 재회, ㉡:종교적 깨달음 18.㉠: 가치 있  
는 것, ㉡: 진리의 구도 19.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  
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20.② 21.③ 22.④ 23.1) 이 작은 주머  
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  
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2)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논  
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다. 3) •수를 놓는 과정  
에서 마음의 위안과 정확을 얻기 때문에, 수놓기를  
계속하고 싶어서(짓고 싶어서) 일부러 수를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하며 끝내지 않는 것(다 짓지  
않는 것)이다. / •임의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서(짓  
고 싶어서) 아직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다 짓지 않  
는 것)이다. 24.② 25.⑤

IV-1 조신의 꿈

1.④ 2.① 3.③ 4.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  
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  
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  
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①⑤ 6.① 7.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 8.① 9.①④  
10.④ 11.① 12.⑤ 13.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  
대, 명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  
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14.② 15.⑤ 16.돌미륵 17.돌미륵, 정토사 18.①  
19.③ 20.② 21.③ 22.③ 23.③ 24.㉠: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 ㉡: 환몽 구조, ㉢: 몽자류 소설 ㉣: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함 25.③ 26.⑤ 27.⑤ 28.전  
설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  
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  
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함. 29.③ 30.① 31.③ 32.③ 33.  
⑤ 34.① 35.①

IV-2 사씨남정기

1.⑤ 2.⑤ 3.⑤ 4.⑤ 5.① 6.③ 7.⑤ 8.② 9.⑤ 10.②  
11.사람의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 12.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  
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  
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따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13.⑤ 14.㉠: 권  
선징약 ㉡: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  
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15.① 16.② 17.⑤ 18.㉠: 축첩 문제 제기 ㉡: 권선징  
약 19.④ 20.⑤ 21.⑤ 22.⑤ 23.⑤ 24.④ 25.② 26.④  
27.⑤ 28.① 29.② 30.① 31.국문 소설로 인한 작가층  
의 확대로 다양한 소설의 유행함. 32.⑤ 33.⑤

### IV-2 난장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1.⑤ 2.③ 3.② 4.② 5.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6.④ 7.② 8.⑤ 9.④ 10.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11.② 12.④ 13.⑤ 14.반어법 / 지명을 반어적으로 설정하여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15.② 16.⑤ 17. 18.① 19.⑤ 20.① 21.③ 22.② 23.⑤ 24.③ 25.① 26.1)소외 계층을 상징함. 2)지명을 반어적으로 설정하여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27.③ 28.⑤ 29.② 30.④ 31.④ 32.③ 33.⑤ 34.① 35.④ 36.③ 37. 지명을 반어적으로 설정하여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38.③ 39.⑤ 40.④

### IV-3 봉산 탈춤

1.② 2.③ 3.⑤ 4.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 5.⑤ 6.③ 7.① 8.⑤ 9.② 10.⑤ 11.재담과 재담을 구분한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12.⑤ 13.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14.(나):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다): 양반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한다. 15.② 16.③⑤ 17.② 18.③ 19.③ 20.⑤ 21.① 22.③ 23.④ 24.④ 25.④ 26.③ 27.② 28.① 29.③ 30.⑤ 31.② 32.부패와 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33.⑤ 34.① 35.④ 36.(1)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2)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37.③ 38.④ 39.② 40.⑤ 41.(1)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의 조롱, 재담의 시작 (2) (다)와 (라)는 모두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만, (다)는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시조이고, (라)는 평민층이 주로 향유하던 민요이다. 42.③ 43.②

### IV-3 물모지

1.⑤ 2.② 3.③ 4.④ 5.최 노인 일가의 몰락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냄. 6.⑤ 7.② 8.① 9.① 10.④ 11.㉠: '게딱지 굴속'과 같은 부정적 인식 ㉡: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처럼 주변 건물이 햇빛을 가림 ㉢: 강도 행각 ㉣: 모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당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2.③ 13.② 14.② 15.① 16.② 17.⑤ 18.③

### IV-4 한송륙

1.⑤ 2.① 3.② 4.③ 5.⑤ 6.④ 7.③ 8.a : 자서전 b : 연대기 c : 회고록 9.② 10.④ 11.④ 12.① 13.③ 14.④ 15.③ 16.② 17.②

### IV-4 권태

1.① 2.④ 3.③ 4.③ 5.불나비, 사는 방법을 아는 정열의 생물이기에 6.⑤ 7.③ 8.⑤ 9.④

### IV-4 공방전

1.② 2.① 3.④ 4.① 5.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게 하여 해를 끼치거나 뇌물이 난무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게 함. 6.① 7.④ 8.③ 9.⑤ 10.⑤ 11.④ 12.② 13.② 14.⑤ 15.③ 16.③ 17.④ 18.④ 19.①

### IV-4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④ 2.④ 3.② 4.③ 5.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6.⑤ 7.② 8.2-1-1.왕궁의 음탕, 붙잡혀간 소설가, 월남 파병 2-1-2.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2-2.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9.⑤ 10.① 11.③ 12.② 13.④ 14.④ 15.④ 16.④ 17.② 18.⑤ 19.③ 20.⑤ 21.④ 22.② 23.② 24.① 25.② 26.⑤ 27.③ 28.② 29.③ 30.①

### V 만보

1.① 2.시적화자는 자연(외물)과 화자 자신(내면)을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여 소망한 바를 이루지 못한 회한과 성찰을 나타냄. 3.④ 4.① 5.④ 6.성찰의 시간 7.⑤ 8.② 9.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10.거문고 11.④ 12.⑤

### V 광문자전

1.② 2.⑤ 4.②④ 5.③ 6.④ 7.① 8.③ 9.③ 10.① 11.[A]:따뜻한 인간애와 인정을 지니고 있으며, 의리를 지킴, [B]: 남녀가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 [C]: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음.

- 끝 -

## IV-1 찬기파랑가

2.①

▶독백이 아닌,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구성 방식을 취함

▶응, 헛갈리지 마!◀

### 1. 애상적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사랑스러운 감정 (×)

### 2. 독백 vs 대화 vs 방백 (★★★)

- ㄱ.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 ㄴ.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로 봄)
- ㄷ.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세속(속세)적 (★★★)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이지만 문학작품에서는 보통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

6.④

▶윗글과 ④는 예찬의 태도가 있음.

### ◆주제 저장소◆

- ①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 ② <흥망이 유수하니>: 고려의 패망과 역사의 허무함.
- ③ <초당에 일이 업서>: 태평 성대의 염원
- ④ <빙자옥절이여>: 매화 예찬
- ⑤ <내 마음 버혀 내어>: 선조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옳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7.④

▶④만이 시련을 나타냄.

8.⑤

▶둘 다 음성상징어는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내면 대구법이 됨.

### 2. 반어법 vs 역설법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 3.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 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 4.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1.②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 문학임.

▶응, 헛갈리지 마!◀

### 사물 vs 자연물

-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